

## 간호대학생의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김미옥<sup>1\*</sup>

<sup>1</sup>남서울대학교 간호학과

## Factors that Influencing Sexual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Miok Kim<sup>1\*</sup>

<sup>1</sup>Department of Nursing, Namseou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성행동, 부모 및 친구와의 성 의사소통, 성태도 및 성지식 정도와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성건강 향상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으며, 2012년 3-4월 서울과 천안 소재 2개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218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성행동, 부모 및 친구와의 성 의사소통, 성태도 및 성지식 정도는 중간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행동은 부모와의 성 의사소통, 성태도 및 성지식과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간호대학생의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 관련 정보의 출처, 성지식, 과거 이성교제 경험, 부모와의 성 의사소통 순으로 나타났다. 성문제는 삶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므로 간호사는 성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를 간호할 때 성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은 부모와 친구를 포함한 개인간 접근 전략을 요구하며, 간호대학생 스스로 성건강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modern society, the college students are experiencing more sexual behaviors, threatening their sexual health.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nursing college student's experiences with sexual behaviors and reveal its associated factors. Methods: As a descriptive correlation study, data was collected from 218 students in a nursing college. Data was analyzed using t-test, ANOVA,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s: Sexual behaviors,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sexual communication with parents and friends averaged 1.53 (range of score 0-3), .84 (0-1), 3.86 (1-5), 2.75 and 2.97 (1-5), respectively. Sexual behaviors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exual attitude. Sexual communication with parents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exual communication with friends and negative correlation with sexual attitude. Sexual knowledge, source of sex related information, past date experience, and sex communication with family were affecting factors on sexual behaviors. Conclusion: Sexual problems may have a negative impact on various aspects of life. Nurses should be aware of the wider considerations that need to be made in relation to the quality of life when caring clients with sexual problems. Therefore, professionals and sex educators must continue to be diligent and creative in their efforts to educate nursing students.

**Key Words** : Sexual behavior, Knowledge, Attitude, Communication

### 1. 서 론

#### 1.1 연구의 필요성

성건강은 성과 성적관계에서 긍정적이고 상대방을 존

중함과 동시에 즐겁고 안전한 성경험, 강압, 차별, 폭력이 없는 성을 의미하며, 성과 관련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웰빙으로 정의한다[1]. 그러나 복잡해지는 사회적 맥락 안에서 성행동의 양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로 인

본 연구는 2013년도 남서울대학교 학술연구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This work was financially supported by the research fund of Namseoul University in 2013.

\*Corresponding Author : Miok Kim(Namseoul Univ.)

Tel: +82-10-5871-9975 email: aprilsea@nsu.ac.kr

Received May 16, 2013

Revised June 12, 2013

Accepted August 7, 2013

하여 후기 청소년 혹은 초기 성인기에 속하는 대학생들은 성적 가치관 및 자기 결정에 있어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2]. 특히 이 시기는 성인에 비해 통찰력, 기술, 인지적 성숙, 정보, 원치 않는 임신,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 성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지체계가 부족하기 때문에[3] 성문제에 노출되기 쉬우며, 성과 생식건강에 위협을 받게 된다.

청소년들의 성행동은 개인, 가족, 또래 및 지역사회 요인에 의해 영향 받는다[4], 성충동과 감각추구성향, 성에 대한 개방적 태도, 음주 및 흡연 등의 개인적 위험요인, 가족의 구조적 요인, 부모의 양육방식, 가정의 성교육 부재 등이 가족 관련 위험요인에 속한다. 또래 위험요인으로는 또래의 부정적인 동조압력, 성행동 경험이 있는 친구와의 관계, 비행친구의 수, 또래의 성적 허용태도 등을 들고 있으며, 유해업소, 성의 상품화, 쾌락주의 성문화 등이 지역사회 위험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4]. 즉 청소년의 성문제는 이러한 위험 요인들로 인해 이들이 성에 관한 올바른 지식, 태도 및 가치관을 형성하기도 전에 성행위가 선행되고, 그 결과 계획되지 않고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 신체적, 정서적, 교육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데에 있다[5].

이렇듯 다양한 위험요인이 산재하는 상황에서 현대의 사회는 오늘날 대학생들에게 이전 시대의 학생들보다 더 많은 성적 지식과 긍정적 성태도를 요구하고 있으며, 적절한 성 관련 의사소통을 통하여 문제 성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Fisher [6]는 부모-자녀 간의 성에 대한 의사소통이 청소년기 자녀의 성태도 형성에 영향함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자녀 간 뿐 아니라 가족 간의 성 관련 의사소통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므로 가정에서의 활발한 성 관련 논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불어 대학생들이 성 전문가에 의해 전달되는 정확한 정보가 아닌 친구 또는 대중매체를 통해 부정확한 정보를 습득할 기회가 증가하고 있어[7], 성관련 문제에 대한 가족의 묵인은 현대의 성 개방 풍조와 대중매체의 영향과 함께 대학생들의 성 관련 혼란과 위험 성행동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또한 청소년기에 있어 또래 친구의 요인은 청소년의 의사결정과 위험추구성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8] 성적으로 활발한 친구 혹은 비행 친구의 유무가 청소년의 초기 성교 시작 시기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9]. 따라서 청소년의 성행동에 있어 가족 및 친구 요인을 고려하는 것은 성에 대한 가치관과 같은 개인적 요인만큼이나 그 중요성이 크다 하겠다.

현재까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행동 관련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4,7,10,11]. 그러나 이들 연구의 대부분이 성지식, 성태도, 성적 자율성, 성 가치관 및 피임 관련 지식 및 태도 등 개인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성행동의 위험 혹은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족 및 또래 친구 관련 요인이 대학생의 성행동에 영향을 정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특별히 간호대학생은 성건강을 주도해나가야 할 미래의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상자의 성관련 문제에 대해 관리자, 교육자, 상담자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 간호사는 대상자의 성건강을 사정하고 중재하는 것을 간호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환자간호에 통합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12]. Lavin과 Hyde[13]는 간호사들이 성 관련 주제를 피하게 되는 이유를 성상담 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고하였다. Kim, Kim과 Kang[13]은 성건강 간호 경험이 있거나 성건강 간호에 대한 수행 의도가 있는 간호사 집단에서 성건강 간호수행정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성건강 간호수행 의도를 높이는 것은 실제 성건강 간호수행을 실천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였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들이 대상자의 성문제에 대한 민감성을 기르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여 성건강 간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성 관련 의사소통을 포함하여 성행동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성행동, 부모 및 친구와의 성 의사소통, 성태도 및 성지식 정도와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성건강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의 중재 요소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성행동, 부모 및 친구와의 성 의사소통, 성태도 및 성지식 정도를 파악 한다.
- 3) 대상자의 성행동, 부모 및 친구와의 성 의사소통, 성태도 및 성지식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성행동, 부모 및 친구와의 성 의사소통, 성태도 및 성지식 정도를 측정하고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descriptive correlation study)이다.

##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충남 소재 2개 대학의 간호학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 하였다. 연구의 표본크기는 G\*power 3.10 program을 이용하여 Cohen[15]의 power analysis 방법을 적용하여 연구 분석에 사용될 통계적 검정법에 따라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주요 통계방법에 따라 적정 표본수를 산출한 결과, 유의수준( $\alpha$ ) 0.05, 검정력( $1-\beta$ ) 85%, 중간 효과 크기(f) 0.15, 예측변수 11개를 가정하여 양측검정 하였을 때 회귀분석에 필요한 적정 대상자는 135명이었다.

본 연구는 설문지를 불충분하게 작성한 8명, 부모의 부재로 인하여 부모와의 성 의사소통을 다룬 본 연구에 부적합했던 대상자 16명을 제외한 218명을 최종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 표본수를 가지고 있다.

## 2.3 연구도구

### 2.3.1 성행동

성행동 경험 측정도구는 Lee[16]가 성에 관련된 행동에 관한 문헌고찰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구성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도구는 총 12문항으로 ‘자주’ 3점, ‘가끔’ 2점, ‘한두 번’ 1점, ‘전혀 없음’ 0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행동 경험정도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Lee[1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 .89, 본 연구에서는 .80 이었다.

### 2.3.2 부모 및 친구와의 성 의사소통

부모 및 친구와의 성 의사소통 정도는 Clay[17]의 성 의사소통 척도를 개방적으로 성에 관련된 의사소통을 할 때 얼마나 편안한지를 측정하는 편안함의 영역, 성에 관련된 의사소통을 할 때 알 수 있는 정보의 양을 측정하는 정보적 영역, 성과 관련된 학습을 하는데 있어서 전반적인 친구와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가치적 영역으로 변안하여 분류한 Ha, Lee와 Jung[18]의 도구를 이용하였으며, 동일한 도구를 부모와의 관계로 변환하여 부모와의 성 의사소통 정도를 측정하였다.

도구는 5점 척도의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및 친구와의 성 의사소통 정도가 많음을 의미하며, 개발당시 Cronbach's  $\alpha$  값 .88,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성 의사소통 .78, 친구와의 성 의사소통 .73이었다.

### 2.3.3 성태도

성태도란 성행위에 대한 개인의 견해로, 일반적으로 성에 대해 갖게 되는 이념, 지각 및 성향을 의미한다. 성태도 측정도구는 Bae[19]가 선행연구를 토대로 구성된 16문항으로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1점, ‘매우 그렇지 않다’ 5점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왜곡된 성태도는 보수적 사고, 성에 대한 잘못된 판단과 지식, 생명의 존엄성을 경시하는 태도를 말하며, 비윤리적인 성태도는 성을 긍정적으로 당당하게 말하는 태도와 사랑하는 사람을 배려하는 태도를 갖지 못함을 의미한다. 또한 허용적인 성태도는 남녀 모두가 혼전에 성충동을 조절하는 책임감 있는 성태도를 갖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태도 점수가 높을수록 왜곡되고 비윤리적이고 허용적인 성태도, 즉 부정적인 성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 .70, 본 연구에서는 .71이었다.

### 2.3.4 성지식

성지식 측정도구는 성지식에 관한 문헌고찰을 토대로 Choi와 Ha[10]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성기관의 구조와 기능, 임신과 피임, 인공유산, 성병, 성생리 및 자위행위 등 7개 영역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맞다’ 1점, ‘틀리다’ 0점, ‘모르겠다’ 0점의 응답범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Choi와 Ha[10]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 .89, 본 연구에서는 .70 이었다.

## 2.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2년 3월에서 4월에 걸쳐 연구자와 연구보조원 1인이 본 연구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에게 직접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거하였으며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분 이었다.

## 2.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기술 통계하였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행동, 부모 및 친구와의 성 의사소통, 성태도 및 성지식 정도와 그 차이는 t-test, ANOVA 및 Scheffe로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성행동, 부모 및 친구와의 성 의사소통, 성태도 및 성지식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

하였다.

- 4) 대상자의 성행동, 부모 및 친구와의 성 의사소통, 성태도 및 성지식과의 관계는 Kolmogorov-Smimov 에 따라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으므로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 5) 대상자의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 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였다.

## 2.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자가 1개 대학기관의 연구윤리승인(NSU1305141)을 얻은 후 개별 연구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취지와 방법을 설명하여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에 한해 연구 참여 동의를 받은 다음 진행하였으며, 설문지 작성 중간에 연구 참여를 원치 않을 경우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 이외에 공개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며, 대상자의 개인적 정보는 비밀로 유지하며 익명성이 보장됨을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자료수집 후 원하는 대상자에 한해 성교육 전문가의 '알기 쉬운 성 이야기'라는 주제의 성교육을 제공하였다.

## 2.7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연구에 사용된 일부 측정 도구의 신뢰도가 다소 낮은 점, 2개 간호대학의 대상자를 편의 추출하여 진행된 제한점을 동반하고 있다.

더불어 성행위와 같은 민감한 주제를 조사함에 있어 연구동의를 자필 서명을 한 후 설문지를 수거하는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인해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동반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에 관한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평균 21세로 남성이 19.7%, 여성이 80.3%였다. 대상자 중 과거에 이성친구와의 교제 경험이 있었던 경우가 80.3%, 현재 이성친구와 교제 중인 경우가 38.5%였다.

대상자의 92.7%가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대부분이(89.4%) 마지막으로 성교육을 받은 경험을 초등학교와 중학교라고 응답하여 고등학교 이후에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10.5%에 불과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aracteristics		n(%)	Mean±SD
Age (years)			21.00±1.89
Sex	Male	43(19.7)	
	Female	175(80.3)	
Siblings	Yes	202(92.7)	
	No	16(7.3)	
Dating experience	Past	Yes	175(80.3)
		No	43(19.7)
	Present	Yes	84(38.5)
		No	134(61.5)
Sex education	Yes	215(98.6)	
	No	3(1.4)	
Last experience of Sex education	Elementary school	125(57.3)	
	Middle school	70(32.1)	
	High school	19(8.7)	
	University	4(1.8)	
Source of Sex related information	Family	Yes	107(49.1)
	No	111(50.9)	
Sex education	Sex education	Yes	160(73.4)
	No	58(26.6)	
	Mass media	Yes	207(95.0)
	No	11(5.0)	

## 3.2 대상자의 성행동, 부모 및 친구와의 성 의사소통, 성태도 및 성지식 정도

대상자의 성행동 정도는 1.53점(점수범위 0-3점)으로 중간 정도를 나타내었다. 부모와의 성 관련 의사소통 정도는 2.75점(점수범위 1-5점), 친구와의 성 관련 의사소통 정도는 2.97점(점수범위 1-5점)으로 중간 이상의 점수를 나타내었다. 성지식 정도는 점수범위 0-1점에서 .84점으로 조사되었으며, 성태도 정도는 3.86점(점수범위 1-5점)으로 중간 이상의 점수를 나타내었다[Table 2].

[Table 2] Sexual Behavior, Sex Communication with Parents and Friends, Sexual attitude, and Sexual Knowledge of Subjects

	Sex Communication with Parents	Sex Communication with Friends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Sexual Behavior
Range of score	1-5	1-5	0-1	1-5	0-3
Mean±SD	2.75±.53	2.97±.23	.84±.09	3.86±.53	1.53±.32

###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행동, 부모 및 친구와의 성 의사소통, 성태도 및 성지식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행동, 부모 및 친구와의 성 의사소통, 성태도 및 성지식 정도는 다음과 같다 [Table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행동 정도는 과거 이성 친구 경험이 있는 경우의 성행동 점수가 경험이 없는 대상자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t=-2.446, p<.05$ ). 마지막 성교육 시기를 중학교라고 응답한 대상자의 성행동 점수가 초등학교 때 마지막 성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대상자보다 낮아 유의하였으며( $F=6.176, p<.001$ ), 성 관련 정보를 주로 가족으로부터 얻는다고 답한 대상자의 성행동 점수가 그렇지 못한 대상자보다 낮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었다( $t=5.940, p<.001$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와의 성 관련 의사소통은 현재 이성 친구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 $t=4.296, p<.001$ ), 마지막 성교육 시기를 초등학교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중·고등학교라고 응답한 대상자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8.127, p<.001$ ). 친구와의 성 의사소통은 가족으로부터 성 관련 정보를 얻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t=2.417, p<.05$ ).

성태도 정도는 남자가 여자보다( $t=2.048, p<.05$ ), 형제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t=2.729, p<.05$ ), 현재 이성 친구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t=2.897, p<.01$ ), 마지막 성교육 시기를 초등학교와 중학교라고 응답한 경우에 고등학교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F=17.404, p<.001$ )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내 부정적인 경향이 있는 것으

[Table 3] Sexual Behavior, Sex Communication with Parents and Friends, Sexual Attitude, and Sexual Knowledg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18)

Characteristics	Sexual Behavior		Sex Communication with Parents		Sex Communication with Friends		Sexual Attitude		Sexual Knowledge			
	Mean±SD	t / F (p)	Mean±SD	t / F (p)	Mean±SD	t / F (p)	Mean±SD	t / F (p)	Mean±SD	t / F (p)		
Sex	Male	1.46±.24	-1.456 (.147)	2.68±.22	-1.449 (.149)	2.94±.21	-.738 (.461)	4.01±.47	2.048 (.042)	.90±.08	4.367 (<.001)	
	Female	1.54±.34		2.76±.58		2.97±.23		3.82±.54		.83±.09		
Siblings	Yes	1.53±.33	.278 (.782)	2.75±.54	.398 (.691)	2.97±.23	-.150 (.881)	3.90±.49	2.729 (.015)	.84±.09	.412 (.681)	
	No	1.51±.27		2.70±.23		2.97±.20		3.36±.77		.83±.10		
Dating experience	Past	Yes	1.50±.34	-2.446 (.015)	2.77±.57	1.449 (.149)	2.98±.21	1.772 (.082)	3.88±.51	1.063 (.289)	.84±.09	-.341 (.733)
		No	1.64±.22		2.64±.29		2.90±.29		3.78±.59		.85±.09	
	Present	Yes	1.51±.23	-.483 (.630)	2.97±.65	4.596 (<.001)	2.97±.22	.010 (.992)	3.99±.42	2.897 (.004)	.83±.10	-1.086 (.279)
		No	1.54±.37		2.61±.37		2.97±.23		3.78±.58		.85±.08	
Sex education	Yes	1.52±.33	-1.003 (.317)	2.75±.53	.280 (.779)	2.97±.23	-.355 (.723)	3.86±.53	.161 (.872)	.84±.09	-.370 (.712)	
	No	1.51±.20		2.66±.44		3.01±.19		3.81±.37		.86±.08		
Last experience of Sex education	Elementary school	1.66±.31	6.176 (<.001)	2.89±.56	8.127 (<.001)	2.93±.24	2.484 (.062)	3.98±.32	17.404 (<.001)	.84±.08	.070 (.976)	
	Middle school	1.46±.34	a>b	2.52±.44	a<b	3.00±.15		3.87±.55	a,b<c	.84±.10		
	High school	1.45±.25		2.64±.35		3.05±.35		3.15±.88		.84±.09		
	University	1.58±.34		2.87±.35		2.94±.30		3.38±.68		.83±.08		
Source of Sex related information	Family	Yes	1.41±.29	5.940 (<.001)	2.78±.72	.300 (.765)	3.00±.20	2.417 (.017)	3.79±.61	-1.784 (.076)	.84±.09	.222 (.825)
		No	1.65±.31		3.00±.20		2.93±.25		3.92±.43		.84±.10	
	Sex education	Yes	1.54±.36	1.109 (.269)	2.75±.60	.104 (.918)	2.96±.23	-1.112 (.267)	3.83±.52	-1.494 (.137)	.83±.09	-2.393 (.018)
		No	1.49±.21		2.74±.26		3.00±.21		3.95±.55		.87±.09	
Mass media	Yes	1.53±.33	.257 (.798)	2.73±.54	-1.618 (.107)	2.96±.54	-1.991 (.057)	3.85±.53	-.766 (.444)	.84±.09	2.542 (.022)	
	No	1.50±.14		3.00±.19		3.02±.06		3.98±.56		.81±.04		

로 조사되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지식 정도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으며( $t=4.367, p<.001$ ), 성관련 정보를 주로 성교육을 통해 얻는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성교육을 통해 성관련 정보를 얻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에 높았다( $t=2.393, p<.05$ ). 또한 대중매체를 통해 성관련 정보를 얻는다고 응답한 경우에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2.542, p<.05$ ).

### 3.4 대상자의 성행동, 부모 및 친구와의 성 의사소통, 성태도 및 성지식과의 관계

대상자의 성행동, 부모 및 친구와의 성 의사소통, 성태도 및 성지식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대상자의 성행동은 부모와 성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낮아지고( $r=-.184, p<.01$ ), 성지식 정도가 높을수록 감소하며( $r=-.256, p<.001$ ), 성태도 점수가 높아 부정적일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152, p<.05$ ). 부모와의 성 의사소통 정도는 성태도 정도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어 부모와의 성 의사소통 정도가 높을수록 성태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r=-.014, p<.05$ ).

[Table 4] Correlation between Sexual Behavior, Sex Communication with Parents and Friends, Sexual attitude, and Sexual Knowledge (N=218)

	Sex Communi- -cation with Parents	Sex Communi- -cation with Friends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r (p)	r (p)	r (p)	r (p)
Sexual Behavior	-.184 (.006)	-.058 (.397)	-.256 ( $<.001$ )	-.152 (.024)
Sex Communication with Parents		.014 (.841)	-.079 (.248)	.149 (.027)
Sex Communication with Friends			.049 (.169)	.003 (.964)
Sexual Knowledge				.059 (.386)

### 3.5 대상자의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일변량분석에서 유의한 관련성이 있어 차이가 난 과거 이성 친구 경험, 성교육 시기 및 가족으로부터 성관련 정보와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부모와의 성 의사소통, 친구와의 성 의사소통, 성지식 및 성태도를 다중회귀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회귀분석에 투입된 변수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각 변수들이 확률적으로

서로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을 분석한 결과, 간호대학생의 성행동의 공차한계 범위는 .97-.99, 분산팽창계수가 1.00-1.02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상자의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가족으로부터 성관련 정보를 얻은 경우( $\beta =.407, p<.001$ ), 성지식( $\beta =-.282, p<.001$ ). 과거 이성 친구 경험( $\beta =-.199, p<.01$ ), 부모와의 성 의사소통 정도 순으로 나타났다( $\beta =-.196, p<.01$ ). 성행동 영향 요인 회귀모형은 유의하였으며( $F=22.081, p<.001$ ), 수정된 결정계수는 29.3%였다 [Table 5].

[Table 5] Regression Analysis of Factors on Sexual Behavior (N=218)

Variable	B	$\beta$	Adj. R <sup>2</sup>	t	p	F	p
Source of sex related information by family	.268	.407	.136	7.006	<.001	22.081	<.001
Level of sexual knowledge	-.994	-.282	.201	-4.878	<.001		
Past dating experience	-.165	-.199	.245	-3.421	.001		
Level of sex communication with parents	-.121	-.196	.280	-3.359	.001		
Constant	6.921						

## 4.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성행동, 부모 및 친구와의 성 의사소통, 성태도 및 성지식 정도와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간호대학생의 성건강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의 중재 요소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성행동 정도는 점수범위 0-3점 중 중간 정도인 1.53점으로, 유사한 도구를 사용하여 일반대학생의 성행동 정도를 측정한 Park과 Kim [20]의 18.56(점수범위 0-28)점에 비해 낮은 정도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성행동의 단계를 횡수에 따라 평가한 반면, Park과 Kim[20]에서는 이성 교제 중 성행동이 이루어진 시기와 성행동 단계 정도를 함께 평가하여 두

연구 간의 일관성 있는 해석이 어려울 수 있으나, 두 연구 모두에서 대학생의 성행동 수준이 중간 이상으로 우리나라 대학생의 성행동이 폐쇄적 성향을 보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부모와의 성 관련 의사소통 정도는 2.75점(점수범위 1-5점)으로 유사한 도구를 이용하여 양측 부모와의 성 관련 의사소통 정도를 측정한 Park과 Kim[20]의 부 16.60점(점수범위 12-60점), 모 19.52점보다 높은 결과를 나타내어 간호대학생들의 부모와의 성 의사소통 정도가 일반대학생들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Hutchinson[21]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모와 성관련 문제에 대해 더 많이 논의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성 의사소통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특별히 여성이 남성보다 청소년기를 통하여 더 많은 성건강 관련 돌봄을 받는 경향이 있어[22], 남성은 상대적으로 부모 양쪽과 더 적은 성관련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23]는 보고에 비추어 볼 때, 성 관련 논의에 있어 양성 부모 모두 자녀와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자녀의 발달과정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 접근전략에 관한 훈련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부모와의 성 의사소통 정도는 성관련 정보를 주로 가족으로부터 얻는 경우와 함께 간호대학생의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Somers와 Paulson[24]의 연구결과와 동일하였다. Amett[25]는 학교 적응력, 자아 존중감, 지역사회 자원과의 네트워크, 청소년의 종교 활동 등과 함께 부모-자녀간의 높은 유대감을 성행동에 영향을 주는 보호요인으로 보고한 바 있다. 또한 Markham 등[26]에 의하면 모녀관계의 질은 자녀의 성적 위험행동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Regnerus[27]는 혼전 성관계에 관한 부모의 허용적인 태도는 자녀의 이른 성행동과 연관되므로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청소년 자신은 위험한 성행동의 감소와 관련된 논의를 할 때 부모와 거의 의논하지 않는다[28] 등 성에 대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자녀의 성행동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는가에 관한 상반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부모-자녀 혹은 가족 간의 성 의사소통은 성에 관한 사회적 인식, 부모 세대와 현 세대의 성교육 형태와 같은 사회문화적 측면과 자녀의 성별, 성행동 수준 등의 개인적 측면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부모와의 성 의사소통 정도가 높을수록 대상자의 성태도가 긍정적이고, 부모-자녀 간의 성 의사소통 정도가 높고, 성 관련 정보를 주로 가족으로부터 얻는 경우에 대상자의 성행동 정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미루어볼 때, 청소년기 자녀와의 성 관련 의사소통 전략에 대한 부모 교

육이 실시될 때 청소년 성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친구와의 성 관련 의사소통 정도는 2.97점(점수범위 1-5점)으로 중간 이상의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는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29]의 남자 대학생 3.07점, 여자 대학생 3.19점과 유사한 수준이다. 친구와의 성 관련 의사소통 정도는 가족으로부터 성 관련 정보를 얻는다고 응답한 경우에 유의하게 높고, 부모와의 성 의사소통 정도와 정적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 내에서의 성 관련 논의 정도가 친구와의 성 의사소통 정도에도 영향함을 알 수 있었다. 비록, 본 연구에서 친구와의 성 의사소통 정도가 성행동에 영향변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으나, 이성 친구와의 교제 경험이 있는 경우에 성행동 수준이 더 높음을 보고하였던 Kim과 Kim[11], Kim, Moon과 Kang[30]의 연구와 달리, 과거 이성 친구와의 교제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성행동 정도가 낮고, 회귀분석 결과에서 또한 해당 변수가 성행동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져 이성 친구와의 교제 경험이 성행동에 부정적으로 영향하는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대학생들이 성관계를 이성교제 과정에서의 통과 의례로 여기고 있을 만큼 성에 대해 개방적이며, 특히 이성교제 상대자와 성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개방적 성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한 Cho[29]의 보고를 미루어 볼 때, 성교육 프로그램은 긍정적 성태도와 적절한 성행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이성교제의 올바른 상호작용 방법과 긍정적인 성 의사소통 전략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정적인 성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Zimmer-Gembeck과 Helfand[31]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혼전 성관계에 대해 허용적이고 관대한 성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결과와 일치하였다. 남녀 간호대학생의 성태도 정도는 중간 이상의 점수인 3.86점(점수범위 1-5점)으로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Yoon과 Byun[32]의 중간 정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에 비해 부정적인 성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이 향후 다양한 환경에서 대상자의 성건강 관리를 담당하게 될 간호대학생들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본 연구에서 현재 이성 친구와 교제 중에 있는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부정적인 성태도를 가지고 있는 경향을 보여 이들이 서로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올바른 이성교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커플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성지식 정도는 점수범위 0-1점에서 .84점으로 남학생

이 여학생보다 높아, 여성이 남성보다 성관련 지식이 더 많았던 Heisler[22]의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성관련 정보를 주로 성교육을 통해 얻는다고 응답한 경우에 성지식이 더 낮았던 반면, 대중매체를 통해 성관련 정보를 얻는다고 응답한 경우에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ields[33]에 의하면 오늘날 대학생들의 성에 매체가 미치는 영향은 과거의 어느 세대보다 강하며, Cooper, Delmonico와 Burg[34]는 성은 인터넷에서 가장 자주 검색되는 주제로 인터넷에서 성적 흥미를 추구하거나 사이버섹스는 주목할 만큼 두드러진 행동일 뿐만 아니라, 첫 성교경험 연령이 감소함으로써 성적 활동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성적으로 활발한 청소년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성교육은 성지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렇듯 청소년의 성적활동이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성교육은 적절하지 못한 대중매체를 통한 성지식 습득을 예방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특별히 간호대학생은 올바른 성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으므로 주입식 강의 형식 뿐 만이 아닌 원치 않는 임신, HIV 감염 및 성병 등의 가상의 상황을 재현하는 시뮬레이션 교육의 통합을 통한 직, 간접적인 경험을 제공하거나, 부모를 위한 성교육 개발, 학교의 정규 교과과정에서 성교육을 심도 깊게 다루는 등,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더불어 성교육의 내용과 적용 방법에 대한 검토가 과거 어느 세대보다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성지식은 간호대학생의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성지식 정도가 높을수록 성행동 정도가 감소하고, 성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성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Gruber와 Grubel[35]가 올바른 성지식을 습득하였을 때 성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고 부정적인 성 정보의 영향을 적게 받으며 직접적인 성행동이 감소될 수 있다고 한 것과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올바른 성지식과 긍정적인 성태도가 갖추어질 때, 적절한 시기에 책임 있는 성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러므로 대학생의 성적 책임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방법적 모색 또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마지막으로 성교육을 받은 시기를 초등학교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57.3%인 데 반해, 중학교 32.1%, 고등학교 8.7%, 대학교는 1.8%에 불과하여 성행동의 발생이 높은 시기로 갈수록 성교육의 부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마지막 성교육 시기를 중학교라고 응답한 경우에 초등학교로 응답한 경우보다 성행동 정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성적 호기심이 급격히 증

가하는 시기인 사춘기를 거쳐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성교육을 통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과거에는 대학의 성건강 자원의 대부분이 임신예방 및 피임법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나, 오늘날 대학이상의 고등교육 기관에서는 성건강과 성적책임감에 초점을 둔 학생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33]. 대학생 또한 성교육을 통하여 피임, 임신, 성기 위생 및 건강, 성병과 에이즈, 임신과 출산 등의 생리적인 지식을 얻고자 할 뿐 아니라, 태도 및 가치관, 이성교제 관련 정보, 성폭력, 성윤리, 사랑의 의미와 책임, 성관계를 위한 기술과 책임 등의 성 가치관에 관한 교육을 받기 원하고 있다[7,10]. Lee[36]는 바람직한 대학생 성교육을 위해서는 성교육 수요자인 대학생의 요구가 반영된 성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성적주체자로서의 자기관리능력을 갖도록 도와야 한다고 하였는데, 대학생들의 이러한 교육적 요구에 비추어 볼 때, 현대의 성교육은 성행동의 다양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고려한 실제적인 교육으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성교육의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성교육은 성관계 시작 지연, 성관계 횟수 감소, 성적 파트너 수의 감소, 콘돔 및 피임법 사용, 임신을 또는 성 전파성 질환의 위험 감소와 같은 다양한 성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37]. 비록 모든 성교육이 위험 성행동 감소와 안전한 성행동 증진에 효과적이진 않았고 폐쇄성이 근본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성교육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36]이라 하더라도, 광범위하고 과학적인 정보를 포함한 성교육이 계속적으로 시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성교육은 남녀 모두에게 성에 대한 동일한 가치 판단 기준을 마련해 줄 수 있어야 하며, 올바른 성지식과 가치 판단에 근거한 성태도 형성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책임 있는 성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바람직하겠다.

간호대학생은 성건강을 주도해나갈 미래의 간호사로서 대상자의 성관련 문제의 관리자, 교육자, 상담자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즉, 간호사는 대상자의 성건강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전문적인 지식 뿐 아니라 성 관련 의사소통에 있어 불편감이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간호대학생은 자신의 성지식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성태도와 올바른 성행동을 갖추어야 하며, 성에 관해 긍정적으로 의사소통함으로써 자신의 성건강과 대상자의 성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을 위한 성교육은 기존의 일반적인 주입식 강의 방식에 더하여 이들이 실제 임상현장에서 대상자의 성문제를 다루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개발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성행동, 부모 및 친구와의 의사소통, 성태도 및 성지식 정도와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성건강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의 중재 요소와 방향을 확인하고자 시도된 연구이다. 본 연구를 통해 성 관련 정보의 출처, 성지식, 과거 이성 친구와의 교제 경험, 부모와의 성관련 의사소통 정도가 간호대학생의 성행동 영향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를 고려함에 있어 부모와 친구 요인을 함께 고려한 다각적 측면의 중재를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간호대학생 스스로 성건강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또한 성건강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미래의 간호사로서의 이들의 역할을 고려해볼 때, 간호대학생이 가족, 또래 및 지역사회와 간호학 이론과정 및 임상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성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간호대학생 자신의 성건강과 성건강 관리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있어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의 개선이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상자의 성건강 관리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교육적 요구를 찾아내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체계적으로 훈련된 성교육자의 양성, 고등학교에까지 이어지는 지속적인 성교육의 의무적 시행과 같은 국가의 정책적 지원 또한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References

- [1] World Health Organization. Sexual health. Retrieved October 25, 2010, DOI: [http://www.who.int/topics/sexual\\_health/en/](http://www.who.int/topics/sexual_health/en/)
- [2] N. M. Chun, Effect of sexual education program on female college student's sexual knowledge and sexual autonom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Womens Health Nursing*, 18(2), 108-116, 2012. DOI: <http://dx.doi.org/10.4069/kjwhn.2012.18.2.108>
- [3] A. Bankole, A. Biddlecom, G. Guiella, W. Singh, E. Zulu, Sexual behavior, knowledge and information sources of very young adolescents in four Sub-Saharan African countries. *African Journal of Reproduction Health*, 11:28-43, 2007. DOI: <http://dx.doi.org/10.2307/25549740>
- [4] S. C. Han, Analysis to influence of risk factors and protective factors on adolescent's sex risk behavior.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6(4), 185-210, 2009.
- [5] J. E. Fielding, C. S. Williams, Adolescent pregnancy in the united states: A review and recommendations for clinicians and research needs.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7, 47-52, 1991.
- [6] T. D. Fisher, Characteristics of mothers and fathers who talk to their adolescent children about sexuality. *Journal of Psychology and Human Sexuality*, 3, 53-70, 1990. DOI: [http://dx.doi.org/10.1300/J056v03n02\\_05](http://dx.doi.org/10.1300/J056v03n02_05)
- [7] M. H. Hur, H. Y. Ahn, E. A. Kwak, K. M. Kim, J. Y. Park, J. I. R. Lee, A study on sexual behavior, and correlation between knowledge of contraception and attitude of contraception among un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7, 267-275, 2007.
- [8] B. B. Brown, M. M. Dolcini, A. Leventhal, Transformation in peer relationships of adolescents: implications for health-related behavior, In *Health Risks and Developmental Transactions During Adolescence*, Edited by J. Schulenberg, J. Maggs, K. Hurrelman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 [9] L. B. Whitbeck, D. R. Hoyt, M. Miller, M. Y. Kao, Parental support, depressed affect, and sexual experience among adolescents. *Youth and Society* 1992, 24:166-177. DOI: <http://dx.doi.org/10.1177/0044118X92024002003>
- [10] M. S. Choi, N. S. A. Ha, study on knowledge, attitude, and experience in sex and sexual autonomy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0, 318-330, 2004.
- [11] J. H. Kim, K. S. Kim,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sexual knowledge and sexual attitudes on their sexual behavior.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3(1), 123-138, 2008.
- [12] K. A. Kim, S. Kim, & Magnan, M. A. Nursing attitudes and beliefs toward human sexuality: collaborative research promoting evidence-based practice. *Clinical Nurse Specialist*, 19(5), 255-229, 2005. DOI: <http://dx.doi.org/10.1097/00002800-200509000-00009>
- [13] M. Lavin, A, Hyde. Sexuality as an aspect of nursing care for women receiving chemotherapy for breast cancer in an Irish context. *European Journal of Oncology Nursing*, 10, 1-18. DOI: <http://dx.doi.org/10.1016/j.jeon.2005.03.013>
- [14] J. H. Kim, S. Kim, H. S. Kang, Development of a Sexual Health Care Scale-Practice (SHCS-P) for

- Oncology Nursing Care,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6, (4), 360-369, 2010.  
DOI: <http://dx.doi.org/10.4069/kjwhn.2010.16.4.360>
- [15] J. Cohen,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Hillsdale, NJ: Lawrence Earlbaum Associates, 1998.
- [16] Y. M. Lee,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experience of the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sin University, Busan, Korea, 2000.
- [17] M. Clay, Parent, children, and communication: frontiers of theory and research. In T. J. Socha, G. H. Stamp(Eds.), Parent-child communication about sex(pp. 173-201). Maywaywah, N.J.: L. Eribaum, 1995
- [18] S. H. Ha, J. Y. Lee, H. J. Jung, The Effect of Parenting Processes on Sexual Attitudes and Sexual Behaviors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4(1), 271-286, 2006.
- [19] S. M. Bae, Effects of Adolescents Sexual Knowledge and Attitudes on their Sexual Behavi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Korea, 2002.
- [20] J. H. Park, T. H. Kim, Focused on communication characteristics with parents and university students' sexual attitude and communication = A Study on Sexual Behavior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Family Relations Association, 10(1), 75-101, 2005.
- [21] K. M. Hutchinson, The influence of sexual risk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 and daughters on sexual risk behaviors, Family Relations, 51(3), 238-247, 2002.  
DOI: <http://dx.doi.org/10.1111/j.1741-3729.2002.00238.x>
- [22] J. M. Heisler, Family Communication About Sex: Parents and College-Aged Offspring Recall Discussion Topics, Satisfaction, and Parental Involvement. Journal of Family Communication, 5(4), 295-312, 2005.  
DOI: [http://dx.doi.org/10.1207/s15327698jfc0504\\_4](http://dx.doi.org/10.1207/s15327698jfc0504_4)
- [23] J. Tobey, S. B. Hillman, C. Anagurthi, C. L. Somers, Demographic differences in adolescents' sexual attitudes and behaviors, parent communication about sex, and school sex education, Electronic Journal of Human Sexuality, 14(3). 1-12, 2011.
- [24] C. L. Somers, S. E. Paulson, Students' perceptions of parent-adolescent closeness and communication about sexuality: relations with sexual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s. The Journal of Adolescence, 23, 629-644, 2000.  
DOI: <http://dx.doi.org/10.1006/jado.2000.0349>
- [25] J. Amett, Sensation seeking: A new conceptualization and a new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16(2), 289-296, 1998.
- [26] C. M. Markham, S. R. Tortolero, S. L. Escobar-Chaves, G. S. Parcel, R. Harrist, R. C. Addy, Family connectedness and sexual risk-taking among urban youth attending alternative high schools. Perspective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35(4), 174-179, 2003  
DOI: <http://dx.doi.org/10.1363/3517403>
- [27] M. D. Regnerus, (2005) Sexual behavior in young adulthood - The changing spirituality of emerging adults. Retrieved February 01, 2013 from <http://www.changingsea.org/regnerus.php>
- [28] J. Jaccard, P. J. Dittus, V. V. Gordon, Parent-teen communication about premarital sex: Factors associated with the extent of communication.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5(2), 187-208, 2000.  
DOI: <http://dx.doi.org/10.1177/0743558400152001>
- [29] S. H. Cho, A Study on Sexual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who Experienced Dating. Unpublished doctoral thesis, Myungji University, Seoul, Korea, 2012.
- [30] S. J. Kim, S. T. Moon, H. S. Kang, Factors in influencing sexual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20, (4), 434-443, 2011
- [31] M. J. Zimmer-Gembeck, M. Helfand, Ten years of longitudinal research on U.S. adolescent sexual behavior: Developmental correlates of sexual intercourse, and the importance of age, gender and ethnic background. Developmental Review, 28(2), 1-72, 2008.  
DOI: <http://dx.doi.org/10.1016/j.dr.2007.06.001>
- [32] S. J. Yoon, E. K. Byun, Factors Influencing University Student's Sexual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3(5), 2449-2458, 2011.
- [33] C. D. Fields, Sexual responsibility on campus. Black Issues in Higher Education, 18, 18. (2002, January 31)
- [34] A. Cooper, D. L. Delmonico, R. Burg, Cybersex users, abusers, and compulsive: New findings and implications. In A. Cooper(Eds.), Cybersex: The dark side of the force(pp.5-29). Philadelphia, PA: Brunner-Routledge, 2000.
- [35] E. Gruber, J. W. Grube, Adolescent sexuality and the media : A review of current knowledge and implications. West Journal of Medicine, 172, 210-214, 2000.  
DOI: <http://dx.doi.org/10.1136/ewjm.172.3.210>
- [36] H. J. Lee, Policy research on advisable sex education for college students, Research Review, 20, 5-16, 2004
- [37] D. Kirby, (2011). The impact of sex education on the sexual behavior of young people. Retrieved February 01, 2013, [http://www.un.org/esa/population/publications/expertpapers/2011-12\\_Kirby\\_Expert-Paper.pdf](http://www.un.org/esa/population/publications/expertpapers/2011-12_Kirby_Expert-Paper.pdf)

김 미 옥(Miok Kim)

[정회원]



- 2001년 2월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9년 2월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06년 3월 ~ 2009년 8월 : 적십자간호대학 전임강사
- 2010년 9월 ~ 현재 : 남서울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여성건강